



# 가 정 통 신 문

교 훈  
성실, 창의, 협동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2길 21 전화) 063-220-6401 팩스) 063-220-6405 (www.jgch.hs.kr)

## 【엠폙스(원숭이두창) 예방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 엠폙스(원숭이두창)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3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엠폙스(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대규모 발생 가능성이 낮고,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확진자는 모두 해외 감염이었으나, 2023.4.7. 이후 해외여행력 없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8명 추가 발생하여 엠폙스(원숭이두창) 감염병 예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감염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엠폙스(원숭이두창)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음</li> <li>(피부병변 부산물) <b>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발진, 딱지)에 직·간접 접촉</b></li> <li>(매개물) <b>감염된 사람·동물이 사용한 물건, 천(의류, 침구 또는 수건) 및 표면에 접촉</b></li> <li>(비말) <b>호흡기 분비물(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접촉</b></li> <li>(기타) <b>태반을 통해</b>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li> </ul>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21일(평균 6~13일)</li> </ul>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b>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li> </ul> </li> <li><b>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뿌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li> <li>*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li> </ul> </li> <li>'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b>서아프리카 계통 엠폙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li> <li>*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폙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li> </ul> </li> <li><b>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b></li> </ul>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li> </ul>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b></li> <li>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li> </ul>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li> <li>환자: <b>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 1인실 격리 입원·치료</b></li> <li>의사환자: 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li> </ul>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폙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li> </ul> </li> </ul>



## 엠폭스 예방수칙



- ✓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
-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물품 주의
-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의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 2. 엠폭스(원숭이두창)와 다른 피부질환과의 차이점

	원숭이두창	수두	대상포진	단순포진	홍역
발진 형태					
발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li> <li>•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 발진</li> <li>• 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li> <li>• 손/발바닥 침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를 포함하여 주로 몸통쪽으로 진행</li> <li>•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li> <li>• 발진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음</li> <li>• 손/발바닥 침범 드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li> <li>•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소적으로 피부, 점막 (눈, 입술 등) 모두 침범 가능</li> <li>• 주로 입술, 구강, 인두, 음부 쪽 발생</li> <li>• 수포, 궤양 동반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붉은 반구진성 발진</li> <li>• 얼굴~귀뒤, 이후 몸통 중앙쪽으로 진행</li> <li>• 탈피 가능</li> </ul>
임상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두통+근육통부터 시작</li> <li>• 고열 가능</li> <li>• 발열 1~4일 후 발진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통+근육통부터 시작</li> <li>• 보통은 미열 (38.8도 미만)</li> <li>• 발열 0~2일 후 발진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음 (감각신경 침범)</li> <li>• 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유발</li> </ul>

2023. 4. 19.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장